

노년기 여성의 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제1보)
- 전북지역 거주 노년기 여성의 팬티 선호경향 및 구매요인을 중심으로 -

이 효진 · 김주연[†]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a Briefs Design Development of the Elderly Women(Part 1)
- Focusing on the Elderly Women's Clothing Behavior in Briefs -

Hyo-Jin Lee and Ju-Yeon Kim[†]
Dept.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5. 4. 13. 접수 : 2005. 7. 1. 채택)

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design of briefs for elderly women, aiming at understanding about the briefs that the elderly women currently wear and helping them draw happiness from wearing clothes. This study, based on the data analyzing the physique of old women that was investigated by the previous study, targeted the elderly women living in Jeonbuk area to conduct the research into their physique, briefs that they pref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majority of the elderly women wore size 100 as looking into the size of briefs that elderly women put on and their physique. For the most part, they had relatively thinner waist compared to the belly and buttock. Second, they were found to have preference for briefs with narrow rubber band, and medium sized design that fit their line of buttock, waist and crotch, for reasons of the activity and comfort. Third, they were found to be generally happy with the briefs that they are currently wearing. Fourth, the factors leading elderly women to buy briefs were analyzed to come from the 4 considerations of beautiful appearance/customer service, practicality, economical reason/size and the comfortable feeling when wearing them. Among such factors, the greatest demand among those factors was the comfortable feeling they can have when they wear briefs, followed by the economical reason/size, practicality, beautiful appearance/customer service.

Key words: elderly women(노년기 여성), briefs design(팬티 디자인), clothing behavior(의복 행동).

I. 서론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의 발달로 인한 조기 사망률의 저하 및 이에 따른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는 세계적인 증

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층 비율이 7%로 유엔이 규정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22년에는 노인층 비율이 14% 이상인 노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도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한국과학재단의 특정기초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01-2004-000-10168-0).

[†] 교신저자 E-mail : 0416moon@hanmail.net

높아져 실버 마케팅이 21세기의 유망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¹⁾, 국민 총 소비 지출에 대한 실버 시장의 규모도 1998년에 약 13조원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약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버 시장은 재래 시장 위주로 구축되어 있으며, 노년층을 위한 전문적인 실버 브랜드 역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년기는 사회 활동의 감소, 신체 기능의 저하 등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자신감이 위축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년기 여성의 경우는 두드러진 체형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등 굽음, 배와 엉덩이 부분의 비대, 유방의 처짐, 사지가 가늘어지는 현상, 근육 및 각 기관과 피부의 약화 현상 등 노년기 여성의 체형적·생리적 변화는 다른 연령층보다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자신감, 자기 표현, 소속감의 증진 등 심리 치료적 가치가 있으며, 기능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내의류는 인체와 피부에 직접 접촉하므로 내의류의 크기, 형태, 성능 등은 노년층의 활동과 생리적인 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내의류 산업 규모는 2002년 1조 300 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팬티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00년도 30.7%, 2001년도 33.7%, 2002년도 3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

그러나 우리나라 팬티 시장은 양적으로 확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각 연령층에 대한 적합한 디자인 제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적, 생리적으로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므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정된 치수 체계를 적용한 제품을 이용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노년기 여성이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기 여성의 변화된 체형의 특징을 팬티 제품 설계 시 적용하여야만 제품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팬티에 대한 연구는 내의류를 포함한 의류의 평가 기준⁴⁾, 소재에 따른 착용감⁵⁾, 상표 충성도⁶⁾ 등으로 대부분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구매 행동 및 관리에 관한 연구⁷⁾만으로 노년층의 체형을 고려한 팬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선행 연구의 노년기 여성 체형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전북에 거주하는 노년기 여성들의 체형 유형, 팬티 선호 경향, 구입 시 고려 사항, 시판 팬티에 대한 불만 사항 등과 팬티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여성의 팬티 착용 실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노년기 여성의 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노년기 여성들이 웰빙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팬티 시장 현황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통계(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류 소비 시장 규모는 2002년에 약 12조 9000 억 원 정도이고, 그 중 내의는 1조 339억원의 규모이다. 전 의류 시장에서 내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8% 내외이며 다른 품목에 비하여 성장률도 큰 편에 속한다. 내의류 중 품목별 소비 비율은 팬티 30.7%, 브래지어 20.8%, 파운데이션 13.1%, 런닝 10.7%, 잠옷

1) 최혜선, “노인과 의복,”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권 1호 (2002), p. 2.

2) 김수아, 이경미, 최혜선,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 여성의 허반신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6호 (2003), p. 118.

3)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내통계 : 소비(내의류 소비시장 규모)” ([2004년 11월 4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kofoti.or.kr/info/statDomestic_list.php?currPage

4) 김미영, 이은영, “의류상품 유형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Ⅰ),” *한국의류학회지* 12권 (1998), p. 249.

5) 조영미, “내의의 소재별 착용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6) 정미실, “의복상표충성도의 차원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속옷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권 (1997), p. 237.

7) 정혜원, 김구자,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인천 광역시 중심으로,” *복식* 26권 5호 (2002), pp. 737-747.

6.0%로, 국내 팬티 판매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⁸⁾

팬티를 포함한 내의류는 50년대 미국 문화의 유입을 수용하기 시작하여 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상품 생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이후 계속적인 수요 증가 및 생산 증가를 보여 왔고, IMF 이후 신규 브랜드 런칭이 늘고 있으며 유통 형태에 따른 브랜드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신규 브랜드가 패션 내의류에 집중되어 있어 패션 내의가 언더웨어의 기본 축으로 자리잡게 되는 등 내의류의 패션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⁹⁾ 이렇게 내의 시장이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한 생활 필수품의 차원이 아닌 심미적인 만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호품으로서 내의를 찾게 되었다. 이 중 팬티는 모든 사람이 항상 착용하는 내의의 일종으로 팬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여성용 팬티 시장은 관제리, 파운데이션라인을 생산하는 신영, 남영, 트라이엄프 인터내셔널, 좋은사람들 등의 고기능성, 고가격, 장식성 위주의 업체와 메리야스 전문업체인 쌍방울, BYC 등의 실용성 위주의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80년대 후반 남성 내의 부문에서는 백양, 쌍방울, 태창의 3대 메이커가, 여성내의 부문에서는 신영, 남영, 태평양패션이 독점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백양, 쌍방울, 태창은 각각 BYC, TRY, VICMAN을 자체 브랜드로 부각시키면서 고기능성 패션내의를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들 기업은 해외 브랜드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자키(쌍방울), 와코루(신영), 트라이엄프(태평양) 등의 상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패션 내의 시장의 급성장은 신규업체의 내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주)좋은사람들(제임스 단)이 혁신적인 컬러를 결집한 기능성 제품을 출시하면서 젊은 신세대들 주 고객으로 확보하며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그 이후 코오롱(르베), LG, 일경불산, 태화

방직 등 외의류업체들의 내의 시장 진출이 줄을 이었다. 또한 여성내의의 경우 트라이엄프, YK인터내셔널, 예우실업, 빠리지앤스 인터내셔널 등의 수입 전문업체가 증가하면서 시장 세분화와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¹⁰⁾ 최근에는 청소년 소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거 청소년 대상 제품이 구색 맞추기 차원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감성에 부합하는 패션성이 가미된 제품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내의류 시장은 고급화를 추구하는 백화점과 저가 제품 중심의 할인점으로 유통 구조가 크게 양분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용 팬티의 경우는 시장 제품 즉, 무표 상품의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것¹¹⁾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표 상품의 가격이 메이커 제품보다 저렴하며 그동안 내의 전문업체가 심미적으로 독특하거나 기능성을 가진 디자인 개발보다는 외국 제품의 카피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표 상품과 전문업체 제품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대문을 위주로 한 시장의 팬티 제품이 디자인 면에서나 품질면에서 전문업체 제품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직장 여성의 증가, 중년 여성의 소비 활동 패턴의 변화, 의류 유통 구조 중 백화점, 진분점, 할인점의 재편성, 케이블 TV를 통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업체들이 웰빙 바람을 타고 각종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항균 기능, 맥라린 색소를 억제하는 일부탄 가공내의, 천연 염색, 천연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을 한 내의뿐만 아니라, 체형 유지 기능, 보온성 향상, 항균과 소취 기능, 온도 조절 기능, 피부에 보습성을 부여하는 내의 제품 등 고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모두가 주로 젊은 연령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노년기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나 케 이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일부 패션내의

8) 한국섬유산업연합회, *Op. cit.*,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kofoti.or.kr/info/statDomestic_list.php?currPage

9) “복종별 니치 마켓 집중 분석,” *어패럴뉴스*, (2000년 9월 기사 [2005년 1월 1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apparelnews.co.kr/news/2000/09>

10) 네이버검색 미리보기, “산업분석보고서” (2000년 8월 작성 [2005년 1월 1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

11) 도원희, “노년층 여성의 체형특성과 Briefs 원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업체에서 그동안의 젊은층 위주에 한정되었던 고개 연령층에서 탈피하고자 '패밀리 브랜드화'를 기획하였으나, 그 초점의 대상인 주로 10대나 중·장년기 주부를 겨냥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60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의 내의 개발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실버 산업의 일환으로 노년기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기능이 부가된 내의류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팬티는 동하부(胴下部)의 최내층에 착용하는 피복으로서 제 2의 피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로부터의 수분 증발과 발한, 분비물, 표피의 박리 등 생리적 대사에 대응하고 이것을 흡수하여 청결하게 유지시키며, 길옷에 땀이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팬티 소재에 요구되는 특성은 촉감이 우수해야 하고, 흡습성과 통기성, 보온성과 경량성 등 보건·위생적 기능을 만족시켜야 하고, 신축성과 압축성 등의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세탁이 용이해야 함은 물론, 피부나 내장에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년층 여성들은 피부가 약하므로 소재의 표면이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감촉이 좋아야 한다. 더욱이 여러 가지 화학가공 처리 시 미량의 가공제에도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로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노년기의 신체 변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노년기 여성의 체형

노년기 여성의 체형 특성에 관련하여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전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 상·하반신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허리와 배 부위가

비만해지며, 엉덩이가 처지고 사지부는 가늘어진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차이가 감소하게 되며, 피하지방의 침착 위치도 개인에 따라 다양해져서 다양한 체형 특성을 가진다. 또한 70대 이후에는 길이 항목뿐만 아니라 몸무게와 관련된 너비 항목, 둘레 항목, 두께 항목 등 전반에 걸쳐 감소 현상을 보인다¹²⁻¹⁴⁾.

도월희¹⁵⁾는 노년층 여성의 체형 특성과 브리프 원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앞 허리둘레의 측측지 부분에 연령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는 배 부위의 지방 축적이 다른 부위보다 많아서 체형 변화가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노년층 여성의 배 부위 형태는 뒷번호보다 앞면에서 형태와 치수상의 차이가 있고, 둔부 부위의 형태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체형 분류를 위해 복부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항목인 복부 둘출 두께와 배번 흉부 하부 경사 각도에 따라 체형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체형에 따라 브리프 착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진경¹⁶⁾은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의 연령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이 항목은 감소하였으며, 길이 항목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엉덩이 처짐과 복부 둘출로 인한 길이의 증가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너비·두께·둘레 항목에서는 하반신 등체부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허리와 배 부위는 대표적인 비만 부위로 특히 엉덩이 둘레에 비해 허리 둘레의 증가 폭이 커져 전체적으로 뭉뚱한 체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체형 분류를 위해 Drop(엉덩이 둘레와 가슴 둘레의 차)에 의한 분류방법을 사용하였고, 뚱뚱하고 원통형 체형, 평균적인 체형, 납작하고 마른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김금화¹⁷⁾는 노년기 여성의 하반신 둘레 항목이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12) 이경화, 최혜선,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여성 체형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4호 (1994), pp. 560-566.

13) 김경화, 최혜선, "노년기 여성 체형의 특성 및 유형화," *복식* 26권 (1995) pp. 279-288.

14) 김인순, "노년 여성의 체형특징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5) 도월희, *Op. cit.*

16) 이진경,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따른 하의 치수규격과 슬랙스 원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7) 김금화, "노년여성의 하반신 체형특성과 스킵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노년 후기로 갈수록 배 둘레가 엉덩이 둘레보다 큰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노년 후기 집단이 노년 전기 집단에 비해 배 길이는 더 짧고 엉덩이 길이는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 분류를 위해 요인 점수에 따라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체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체형별로 스키트를 제작하여 착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김인순¹⁸⁾은 55세 이상의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의 특성, 체형 결정 인자 분석, 추출 인자에 따라 체형을 유형화하였다. 직접치와 간접치로 분류하여 직접치는 키에 대한 길이 항목과 둘레·두께·너비 항목에 따라 네 가지 유형, 간접치는 정면과 측면으로 나누어 정면은 정면의 너비 및 골곡과 허리, 엉덩이의 골곡, 어깨경사도에 따라 H, A, 역 Y, X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측면 체간부와 하반신의 실루엣을 도대로 흰, 숙인, 바른, 깎힌 체형으로 4가지로 분류하여 노년기 체형을 유형화하였다.

김수아 등¹⁹⁾은 노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의 크기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체형 분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항목간의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키와 상관이 높은 높이 및 길이에 관련된 항목과 몸무게와 상관이 높은 너비, 두께, 둘레에 관한 항목으로 나누고 키와 몸무게에 대한 지수치로 요인분석을 하여 키가 크고 다리가 굵은 유형과 비만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키가 작고 복부비만의 경향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문지연²⁰⁾은 노년기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배 부위가 비만하거나 혹은 배가 들출되어 있으며, 노년 여성의 하의류에서 배 부위의 치수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여 배 부위 형태요인을 추출하여 하반신 유형을 유형화하였다. 하반신 정면 간접측정치의 지수치를 인자분석하고, 허리에서 회음부 사이의 하반신의 동체부를 중심으로 형태를 분석하여 5개의 인자를 추출하여 체형을 유형화 한 결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1은 전체적으로 크고, 배부위의 너비와 둘레가 엉덩이 부위의 너비와 둘레보다 큰 체형이며, 유형 2는 허리, 배, 엉덩이 부위가 균형적이고, 전체적으로 너비와 둘레가 작은 중년 여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형 3은 허리, 배, 엉덩이 너비가 거의 비슷한 H형 체형이며, 유형 4는 배와 엉덩이 부위의 너비, 둘레가 비슷하고 배와 엉덩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며, 허리가 긴 체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발표된 노년기 여성의 체형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분석하고, 팬티가 동허부 특히 허리에서 회음부에 이르는 부분을 피복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지연의 하반신 체형분류가 체형별 팬티 디자인을 위한 체형 분류와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문지연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형 유형을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년기 여성의 팬티 스타일의 일반적인 선호 경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노년기 여성의 팬티 구매 행동 특성 및 착용하고 있는 팬티의 불만족 요인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노년기 여성의 체형 및 비만도에 따른 팬티의 선호 경향 및 구입 시 평가 기준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노년기 여성의 팬티 구매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21,22)}를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인 연령, 거주지, 신체치수, 체형 유형, 현재 착용하는 팬티의 치수 등에 관한 8문항, 현재 주로 착용하는 팬티의 선호경향에 대한 13문항, 팬티 착용시 느꼈던 불편사

18) 김인순, *Op. cit.*

19) 김수아, 이경미, 최혜선, *Op. cit.*, pp. 117-134.

20) 문지연,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류 및 하의류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1) 정혜원, 김구자, *Op. cit.*, pp. 737-747.

22) 도월희, *Op. cit.*

항에 관련된 5점 Likert 척도 10문항, 팬티 구매행동과 관련된 5점 Likert 척도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2005년 2월 중에, 전북에 거주하는 60, 70대 노년기 여성 1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노년층이므로 설문지의 내용을 피험자에게 읽어주고 조사자가 대답을 설문지에 기록하는 개인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을 사용하여 진 분항에 대해 기술 통계를 산출하였다. 팬티 구매 행동 특성 및 불만족 요인을 Varimax회전을 통해 분석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체형에 따른 구매행동 및 선호경향에 대한 차이점 확인을 위해 ANOVA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전체 응답자 중 79.8%인 138명이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며, 김제 지역 거주자가 5.8%인 10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6.8세로 조사되었으며, 60대가 전체의 76.9%인 133명이었으며, 70대가 23.1%인 40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신체 조건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응답자의 체형을 BMI(체질량지수)²³⁾를 구하여 분류한 결과, 정상체중 63%, 과체중 28.9%, 저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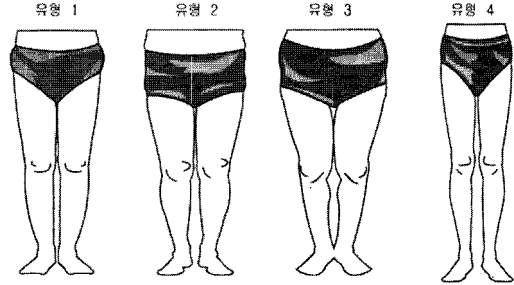
<표 1> 응답자의 신체 조건 (n= 178)

구분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신장(cm)	142	168	157.38	4.08
체중(kg)	42	80	59.29	6.40
허리둘레(inch)	24	40	31.47	2.92
엉덩이둘레(inch)	26	45	34.89	3.27
BMI 지수	16.82	32.44	23.96	2.62

23) Body mass index-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수치가 20 미만일 때를 저체중, 20~24일 때를 정상체중, 25~30일 때를 경도비만, 30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본다.

24) 도원희, Op. cit.

25) 문지연, Op. cit.



<그림 1> 선행연구에 기초한 체형 유형.

8.1% 등 전반적으로 정상 체형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 노년기 여성들이 착용하는 팬티 치수를 알아본 결과로는 100호(42.2%)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95호(26.0%), 90호(13.9%), 105호(12.1%), 85호(4.0%), 110호 이상(1.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원희²⁴⁾의 연구에서 60~80대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95호의 착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응답자의 체격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95호와 100호의 전체적인 착용 비율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문지연²⁵⁾의 체형의 분류에 기초한 자기 체형에 대한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크고, 배 부위의 너비와 둘레가 엉덩이 부위의 너비와 둘레보다 큰 체형인 '유형 1'이 18.5%, 허리, 배, 엉덩이 부위가 균형을 이루고, 전체적으로 너비와 둘레가 작은 중년 여성의 체형인 '유형 2'가 12.7%, 허리, 배, 엉덩이 너비가 거의 비슷한 H형인 '유형 3'이 27.8%, 배와 엉덩이부위 너비, 둘레가 비슷하고, 배와 엉덩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며, 긴 체형인 '유형 4'가 41%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분류한 체형 유형이다.

각 체형 유형에 따른 균질 집단의 비만도를 분산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번 유형인 사람들의 BMI 지수가 25.215 로 가장 높았으며, 2번 체형(평균 24.4495), 1번 유형(22.6855), 4번유형(20.6882)의 순으로 BMI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체형유형에 따른 비만도 분산분석

구분	빈도	평균 BMI 지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F값	유의수준 (Sig.)
유형 1	32	22.685526	1.6070017	.2840805	29.997	.000
유형 2	48	24.449574	1.8660778	.2693451		
유형 3	71	25.214691	2.5392383	.3013521		
유형 4	22	20.688200	1.9063385	.4064327		
전체	173	23.958959	2.6216183	.1993179		

2. 팬티 스타일 선호 경향

현재 주로 착용하는 팬티의 색상은 팬티의 기본색이라 할 수 있는 흰색이 35.8%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이 아이보리(17.9%), 분홍(17.3%), 베이지(16.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히 착용하고 싶은 팬티의 색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분홍(27.7%), 흰색(17.3%), 아이보리(15.0%), 베이지(13.9%) 등으로 나타나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 색상과 앞으로 착용을 희망하는 팬티 색상의 선호도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대 미혼 여성의 속옷 색상이 흰색 이외에 분홍색이나 아이보리색이 선호되고 있다는 사효선²⁶⁾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어 연령에 관계 없이 색상이 진하지 않은 무난한 색상이 여성들의 속옷 색상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주로 착용하는 팬티의 무늬 유무를 알아본 결과는 ‘있다’가 49.1%, ‘없다’가 50.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늬가 있는 경우 역시 눈에 띄는 무늬보다 작고 은은한 꽃무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착용하기를 원하는 팬티의 무늬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 50.9%, ‘작고 은은한 꽃무늬’ 30.1%, ‘크고 화려한 꽃무늬’ 13.3% 등으로 나타나서 노년기 여성들 대다수가 팬티의 무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러 가지 무늬 중에서는 화려하지 않은 은은한 무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이스 장식에 대한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있다’가 22.5%, ‘없다’가 77.5%로 나타났으며, 레이스 장식이 있는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이유로는 ‘화려한 것이 좋아서’ 53.8%, ‘젊은 느낌이 들어서’ 20.5%, 유행하므로 10.3%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

대로 노년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무늬나 레이스 등으로 장식된 화려한 팬티보다는 단순하며 실용적인 팬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레이스 장식이 있는 경우에는 유행이나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등의 심미적인 요인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팬티의 허리 고무 밴드 형태의 선호도는 좁은 고무 밴드 55.4%, 넓은 고무 밴드 34.5%,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 10.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허리 고무 밴드 형태별 각각의 착용 이유를 살펴보면, 좁은 고무 밴드는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가 36.6%, ‘착용감이 좋아서’가 34.4%로 나타났고, 넓은 고무 밴드 역시 ‘착용감이 좋아서’와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가 각각 39.7%와 34.5%로 나타났다. 또한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인 경우에는 ‘세탁시 튼튼하고 오래 입을 수 있어서’가 착용 이유 중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형태별 착용 이유에서 특징적인 점들을 살펴보면 좁은 고무 밴드 형태에서는 허리를 조이지 않는 편안함이 노년기 여성의 중요한 착용 이유가 되었고, 넓은 고무 밴드의 경우는 착용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는 세탁에 대한 내구성이 노년기 여성들의 팬티 착용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표 4).

BMI 지수에 의해 나누어진 집단과 허리 고무 밴드의 형태에 대한 χ^2 분석 결과 집단간에 유의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chi^2=1.508$, 자유도 4, $p=0.825>0.05$), 체형 유형별 집단과 허리 고무 밴드의 형태에 대한 χ^2 분석 결과 역시 유의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chi^2=2.022$, 자유도 6, $p=0.918>0.05$)으로 나타나서 체형 유형이나 비만도에 따라서 특별한 형태의

26) 사효선, “우리나라 20대 미혼여성의 속옷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표 3〉 체형 및 비만도에 따른 허리 고무밴드 착용 경향

구분		체형 유형				BMI 지수에 의한 집단			전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비만	
넓은 고무 밴드	빈도	10	15	26	7	6	33	19	58
	백분율(%)	33.3	31.3	37.7	33.3	46.2	31.4	38.0	34.5
좁은 고무 밴드	빈도	18	29	35	11	6	61	26	93
	백분율(%)	60.0	60.4	50.7	52.4	46.2	58.1	52.0	55.4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	빈도	2	4	8	3	1	11	5	17
	백분율(%)	6.7	8.3	11.6	14.3	7.7	10.5	10.0	10.1
전체	빈도	30	48	69	21	13	105	50	168
	백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2.022$, 자유도 6, $p=0.918>0.05$		$\chi^2=1.508$, 자유도 4, $p=0.825>0.05$		

주 1 : BMI 지수에 의한 집단 분류시 비만에 해당하는 빈도가 낮아 χ^2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과체중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표 4〉 허리 고무밴드 형태별 착용 이유

구분		허리를 조이지 않아서	모양이 좋아서	착용감이 좋아서	세탁시 튼튼 오래 입을 수 있어서	기타	전체
		빈도	20	4	23	10	
넓은 고무 밴드	백분율(%)	34.5	6.9	39.7	17.2	1.7	100.0
	빈도	34	6	32	17	4	93
좁은 고무 밴드	백분율(%)	36.6	6.5	34.4	18.3	4.3	100.0
	빈도	4	0	3	7	3	17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	백분율(%)	23.5	0	17.6	41.2	17.6	100.0
	빈도	58	10	58	34	8	168
전체	백분율(%)	34.5	5.9	34.5	20.2	4.8	100.0
	$\chi^2=9.968$, 자유도: 8, $p=0.267>0.05$						

허리 고무 밴드를 선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주로 착용하는 팬티의 디자인은 미니형(mini)이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맥시형(maxi)이 32.1%, 미니형(mini) 10.7% 등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별 착용 이유를 교차 분석 결과 선호하는 디자인과 그 착용 이유 사이에는 유의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chi^2: 31.400$, 자유도: 10, $p=0.001<0.05$). 미니형 착용자의 경우는 '모양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니형 착용자의 경우 '착용 후 활동하기 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안정감이 있어서'가 그 다음이었다. 맥시형 착용자의 경우 '몸에 조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미니형, 미니형, 맥시형 착용자에 따라 착용 이유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표 5).

그러나 전반적으로 팬티 디자인은 형태를 타끈하고 활동성이 중요한 착용 이유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표 5> 디자인별 착용 이유

구분	몸이 조이지 않아서	모양이 좋아서	따뜻해서	안정감이 있어서	착용후 활동 하기 편해서	몸매를 보완 해 주므로	전체	
미니형	빈도	2	7	0	1	8	0	18
	백분율(%)	11.1	38.9	0	5.6	44.5	0	100
미디형	빈도	20	10	1	25	37	3	96
	백분율(%)	20.8	10.4	1.5	26.1	38.5	3.1	100
맥시형	빈도	23	2	2	13	12	2	54
	백분율(%)	42.6	3.7	3.7	24.1	22.2	3.7	100
전체	빈도	45	19	3	39	57	5	168
	백분율(%)	26.8	11.3	1.8	23.2	33.9	2.9	100

$\chi^2 : 31.400$, 자유도 : 10, $p=0.001<0.05$

수 있었다. 그 중에 특히 미니형과 미디형의 경우는 활동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한 착용 이유가 되고 있으며, 맥시형은 착용감과 안정감 등 착용시 느껴지는 편안함으로 인해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형에 따른 착용 패턴 디자인에 대한 χ^2 분석 결과, $\chi^2=17.754$, 자유도 6, $p=0.007<0.05$ 로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 부위의 너비와 둘레가 엉덩이 부위의 너비와 둘레보다 큰 체형인 '유형 1'의 경우 미디형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허리, 배, 엉덩이 부위가 균형적이고, 전체적으

로 너비와 둘레가 작은 증년 여성의 체형인 '유형 2'의 경우 역시 미디형, 맥시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허리, 배, 엉덩이 너비가 거의 비슷한 H형인 '유형 3'은 미디형, 맥시형 등이었으며, 배와 엉덩이 부위의 너비, 둘레가 비슷하고, 배와 엉덩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며, 긴 체형인 '유형 4'의 경우 미디형, 미니형 순으로 나타났다. BMI 지수에 의해 나누어진 집단과 패턴 디자인과의 관계에서는 $\chi^2=10.698$, 자유도 4, $p=0.030<0.05$ 로 유의적인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체형 및 비만도에 따른 패턴 디자인 착용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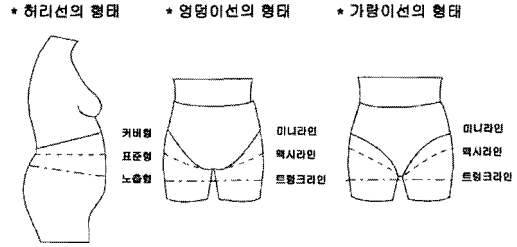
구분		체형 유형				BMI 지수에 의한 집단			전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비만	
미니형	빈도	4	2	6	6	2	16	0	18
	백분율(%)	12.9	4.3	8.5	30.0	14.3	15.1	0	10.7
미디형	빈도	21	30	34	11	10	58	28	96
	백분율(%)	67.7	65.2	47.9	55.0	71.4	54.7	58.3	57.1
맥시형	빈도	6	14	31	3	2	32	20	54
	백분율(%)	19.4	30.4	43.7	15.0	14.3	30.2	41.7	32.1
전체	빈도	31	46	71	20	14	106	48	168
	백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hi^2 = 17.754$, 자유도 6, $p=0.007<0.05$				
					$\chi^2 = 10.698$, 자유도 4, $p=0.030<0.05$				

주 1 : BMI 지수에 의한 집단 분류시 비만에 해당하는 빈도가 낮아 χ^2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 과체중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노년기 여성들은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편안한 미디형과 백시형 등의 팬티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체형 유형에 따라서는 허리가 가늘고 둔레 향목이 작은 체형에서 미니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기 여성들이 특별히 착용하고 싶은 팬티의 디자인 중에서 원하는 허리선의 형태를 보면, 커버형이 27.7%, 시판 팬티의 허리선에 해당하는 표준형이 68.2%, 노출형이 4%로 나타났다. 엉덩이선의 형태는 맥시라인(68.8%)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니라인이 15.0%, 트렁크라인이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가랑이선의 선호형태도 백시라인이 68.2%, 미니라인 27.7%, 트렁크라인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엉덩이선과 앞가랑이선의 형태는 활동성이 좋으면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백시라인이 선호되고 있었다. 트렁크라인은 커버성은 좋으나 활동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년기 여성들이 착용하고 싶은 팬티 디자인의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2>는 각 부분별 형태에 따른 팬티 디자인을 제시한 그림이다.

팬티 제품의 회사별 구입 상황을 알아본 결과 'B사'가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SS사'로 25.4%를 나타내었으며, 'SY사' 10.4%, 시장 제품 9.8%, 할인 마트 PB제품 6.9%, 'NY사' 5.8%, 기타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이커 제품 구입시에 노년기 여성들은 라제리나 파운데이션을 전문으



<그림 2> 팬티 디자인.

로 생산하며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SY사', 'NY사', 'GF사' 등의 제품보다 'SS사', 'B사'와 같은 내의 전문업체의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표 상품'으로 일컬어지는 시장 제품과 할인 마트 자체 개발 브랜드인 할인 마트 PB 제품의 구입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사의 팬티 제품별 선택 이유를 살펴본 결과에서, 'SS사'는 '몸에 잘 맞고 편해서'와 '가격이 적당해서'의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B사'와 'SY사' 제품은 '소재가 좋아서'와 '몸에 잘 맞고 편해서'의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NY사'의 제품은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가 높게 나타나서, 타사보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장 제품과 할인 마트 PB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적당해서'와 '몸에 잘 맞고 편해서'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격 대비 신체 적합성의 우수함으로 인해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 팬티 제품의 회사별 구입 상황과 선호 이유는 <표 8>과 같다.

<표 7> 노년기 여성들이 착용하고 싶은 팬티 디자인

구분	형태	빈도(명)	백분율(%)	합계
허리선 형태	커버형	47	27.7	173명 100%
	표준형	118	68.2	
	노출형	7	4	
엉덩이선 형태	미니라인	26	15	173명 100%
	맥시라인	119	68.8	
	트렁크라인	28	16.2	
앞가랑이선 형태	미니라인	28	16.2	173명 100%
	맥시라인	113	65.3	
	트렁크라인	32	18.5	

3. 착용 팬티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에 대해 분산 분석을 한 결과(표 9), 대체적으로 현재 착용하는 팬티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구매하겠다' 57.8%, '잘 모르겠다' 36.4%, '다른 상표를 구매하겠다'가 5.8%로 나타나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에 대한 만족도가 팬티 상표의 지속적인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표적인 저관여 제품으로써 팬티에 대한 기대도가 높지 않으므로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가 그 기대 수준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는 소비자

〈표 8〉 팬티 제품의 회사별 구입 상황

구분	선호도		선호 이유						
			모양	소재	색상	가격	편안함	사이즈	기타
SS사	빈도	44	0	6	1	14	18	3	2
	백분율(%)	25.4	0	13.6	2.3	31.8	40.9	6.8	4.5
B사	빈도	59	0	21	2	13	20	1	2
	백분율(%)	34.1	0	35.6	3.4	22.0	33.9	1.6	3.4
SY사	빈도	18	1	8	2	0	7	0	0
	백분율(%)	10.4	5.6	44.4	11.1	0	38.9	0	0
NY사	빈도	10	1	2	3	2	2	0	0
	백분율(%)	5.8	10.0	20.0	30.0	20.0	20.0	0	0
GF사	빈도	6	0	3	0	1	2	0	0
	백분율(%)	3.5	0	50.0	0	16.7	33.3	0	0
시장제품	빈도	17	1	0	0	10	5	0	1
	백분율(%)	9.8	5.9	0	0	58.8	29.4	0	5.9
외국제품	빈도	1	0	1	0	0	0	0	0
	백분율(%)	0.6	0	100.0	0	0	0	0	0
할인마트 PB 제품	빈도	12	1	0	0	7	1	0	3
	백분율(%)	6.9	8.3	0	0	58.3	8.3	0	25
기타	빈도	6	0	1	0	0	2	0	3
	백분율(%)	3.5	0	16.7	0	0	33.3	0	50.0
전체	빈도	173	4	42	8	47	57	4	11
	백분율(%)	100	2.3	24.3	4.6	27.2	32.9	2.3	6.4

〈표 9〉 착용 팬티에 대한 만족도

항 목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편차
전체적인 만족도	2.00	5.00	3.4104	.68988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1.00	5.00	3.3699	.74054
품질에 대한 만족도	2.00	5.00	3.4682	.79634
치수체계에 대한 만족도	1.00	5.00	3.3873	.80352
가격에 대한 만족도	1.00	5.00	3.0983	.83988

〈표 10〉 착용 팬티에 대한 불만사항

항 목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
얇이나 분비물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	1.00	5.00	2.6821	.86102
촉감이 좋지 않다.	1.00	5.00	2.6416	.77677
신축성이 좋지 않다.	1.00	5.00	2.7341	.82041
앉았다 일어서면 뒤허리 선이 내려 온다.	1.00	5.00	2.8613	.94214
앉았다 일어서면 엉덩이의 고무밴드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	1.00	5.00	2.7514	.91598
앞가랑이 고무 밴드가 조인다.	1.00	5.00	2.7688	.91102
허리 고무 밴드가 조인다.	1.00	5.00	2.7399	.93788
엉덩이를 충분히 감싸주지 못한다.	1.00	5.00	2.9653	1.02807
배를 충분히 감싸주지 못한다.	1.00	5.00	2.9191	.97309
말바대가 좁다.	1.00	5.00	3.0867	.93913

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팬티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며, 구매한 팬티가 그 기대 수준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이라고 밝힌 김세희²⁷⁾의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착용 팬티에 대한 불만 사항의 분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비교적 불만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배를 충분히 감싸주지 못한다’ ‘엉덩이를 충분히 감싸주지 못한다’, ‘말바대가 좁다’와 같이 배와 엉덩이 부위의 커버리예에 대한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10).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팬티 제품의 디자인이 각 연령대에 의한 체형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디자인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배와 엉덩이의 비만도가 높아지고 처지는 현상에 반해 사지부가 가늘어지는 노년기 여성의 체형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팬티 구입시 평가 기준

노년기 여성이 팬티 구입시 고려하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 분석을 주성분 분석법으로 고유값 1.0 이상을 추출하여 Varimax 직교 회전법에 의하여 실행한 결과 요인 수는 4개로 구분되었으며, 요인 적재량

은 0.4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표 11).

요인 1은 상표의 인지도 및 원산지의 확인, 착용 시 품위 있어 보이는가, 유행에 맞는 디자인인가, 붐메 보정 효과가 있는가, 레이스나 액세서리가 있는가, 색상과 디자인이 만족스러운가, 판매원이 친절한가, 교환을 잘 해 주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심미성/서비스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22.270%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세탁이 용이한가, 오래 착용시의 형태 변화가 없는가, 바느질이 튼튼한가, 계절에 적합한 두께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실용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4.090%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 3은 착용했을 때의 느낌이 좋은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좋은가, 사이즈가 적합한가, 가격이 적당한가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경제성/사이즈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2.608%의 설명력을 가진다. 요인 4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소재가 무엇인가, 촉감이 좋은가, 입고 벗기 편한가에 관한 내용으로 착용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1.597%의 설명력을 가진다.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 중 60.566%를 차지하였다.

노년기 여성의 팬티 구매 요인별 평균값은 착용감이 가장 높으며($M=4.03$), 그 다음은 가격이나 맞유세 등의 경제성/사이즈($M=3.99$)으로, 인천 지역 노년 여

27) 김세희, 이은영, “내의류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따른 시장 세분화 연구,” *대한국정학회지* 39권 11호 (2001), pp. 73-88.

〈표 11〉 팬티 구매 요인

요인명	요인 구성 요소	구성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심미성/서비스	상표	.825	.149	-.133	.129
	품위	.781	.118	.068	-.058
	유행성	.758	-.102	.114	-.018
	원산지	.758	.036	-.090	.194
	몸매 보정 효과	.701	.018	.338	-.006
	레이스나 액세서리 부착 여부	.674	.171	.134	.138
	색상과 디자인	.612	.029	.334	.281
	구입시 서비스	.594	.233	.063	.031
	교환등의 애프터 서비스	.532	.288	.240	.254
요인 2: 실용성	세탁 용이성	.086	.742	.057	.089
	오래 착용시의 형태 변화	.097	.729	.060	.330
	바느질의 튼튼함	.052	.716	.273	.218
	계절에 적합한 두께	.304	.634	.099	.167
요인 3: 경제성/사이즈	착용시 느낌	.241	.063	.788	.220
	가격에 대비 품질	.045	.206	.707	.229
	사이즈가 직합성	.159	.273	.655	.183
	가격	.039	.527	.555	.016
요인 4: 착용감	활동성	.055	.154	.287	.801
	소재	.184	.175	.091	.778
	촉감	.210	.388	.215	.637
	압고 벗기 편함	-.011	.234	.415	.462
Cronbach's <i>a</i>		0.885	0.803	0.774	0.786
아이겐 값(Eigen Value)		4.677	2.959	2.648	2.435
설명분산		22.270	14.090	12.608	11.597
누적분석		22.270	36.361	48.968	60.566

성을 중심으로 한 내의 구매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착용감, 경제성이라는 정혜원 등²⁸⁾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 다음의 요인으로 세탁 및 형태 변화 등의 실용성($M=3.89$),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한 심미성/서비스($M=3.27$)의 순이다. 서비스, 상표, 특히 심미성은 상대적으로 고려하는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팬티 구입 시 장식 등이 착용에 불편함을 주는지는 고려하나 심미성의 변에서 장식을

28) 정혜원, 김구자, *Op. cit.*, pp. 737-747.

고려하여 구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의는 길옷과 달리 심미성보다는 착용성과 쾌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구매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실용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는 정혜원²⁹⁾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형 유형에 따른 구매 요인의 차이점 검증에 위한 분산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선행 연구의 노년기 여성 체형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진복에 거주하는 노년기 여성들의 체형 유형, 팬티 선호 경향, 구입시 고려 사항, 시판 팬티에 대한 불만 사항 등의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노년기 여성의 팬티 착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노년기 여성의 팬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노년기 여성들이 행복한 의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여성들의 팬티 치수 및 체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착용하는 팬티 치수는 100호로 나타났다. 또한 문지연³⁰⁾의 연구를 기초로 응답자들의 체형 유형을 분류한 결과 배와 엉덩이 부위의 너비, 둘레가 비슷하고, 배와 엉덩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며, 긴 체형인 '유형 4', 허리, 배, 엉덩이 너비가 거의 비슷한 H형인 '유형 3', 전체적으로 크고, 배 부위의 너비와 둘레가 엉덩이 부위의 너비와 둘레보다 큰 체형인 '유형 1', 허리, 배, 엉덩이 부위가 균형적이고, 전체적으로 너비와 둘레가 작은 중년 여성의 체형인 '유형 2'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둘째, 팬티 스타일의 선호 경향을 살펴보면 팬티의 색상은 흰색을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팬티 무늬의 유무는 '있다'와 '없다'가 비슷한 비율로 무늬가 있는 경우는 작고 은은한 꽃무늬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앞으로 착용하길 원하는 색상으로는 분홍색,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 등 무난한 색상을 선

호하였고, 무늬의 경우는 '없다'와 '작고 은은한 꽃무늬' 등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노년기 여성들 대다수가 팬티의 무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은은한 무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레이스 장식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레이스 장식이 있는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유행이나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등의 심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착용하고 있는 팬티의 허리 고무 밴드 형태를 알아본 결과 좁은 고무 밴드, 넓은 고무 밴드,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좁은 고무 밴드 형태는 허리를 조이지 않는 편안함이, 넓은 고무 밴드의 경우는 착용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고무줄을 끼우는 형태는 세탁에 대한 내구성이 노년기 여성들의 팬티 착용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허리 고무 밴드의 형태와 비만도 또는 체형 유형과 상관 관계는 집단간에 유의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착용하는 팬티의 디자인은 미디형, 맥시형, 미니형 순이었다. 미니형과 미디형의 경우는 활동성과 디자인이 중요한 착용 이유가 되고 있으며, 맥시형은 착용감과 안정감 등 착용시 느껴지는 편안함으로 인해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형 유형별 선호하는 팬티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는 유의차는 없었으며, 체형 유형을 박론하고 미디형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허리선은 커버형, 엉덩이선의 형태는 맥시라인, 앞가랑이선의 형태는 맥시라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팬티 제품의 회사별 구입 상황을 알아본 결과 'B사', 'SS사', 'SY사', 시장 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택 이유로는 착용감, 가격, 소재 등이 있었다.

셋째,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현재 착용하는 팬티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이상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 상표를 지속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착용하고 있는 팬티에 대한 불만도는 비교적 낮았으나, 배와 엉덩이의 커버력에 대한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노년기 여성이 팬티 구입시 고려하는 사항을

29) 정혜원, "여성의 내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학회지* 28권 3/4호, pp. 422-432.

30) 문지연, *Op. cit.*

요인 분석한 결과 심미성/서비스, 실용성, 경제성/사이즈, 착용감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착용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경제성/사이즈, 실용성, 심미성/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형유형에 따른 구매 요인의 차이점 검증에 위한 분산 분석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노년기 여성을 위한 팬티 개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년기 여성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팬티 제품의 신체 커버력에 대한 불만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판용 팬티 제품의 디자인이 각 연령대에 의한 체형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디자인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판용 팬티의 수정·보완을 통해 노년기 체형적 특징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제시가 요구된다.

둘째, 노년기 여성들은 착용감이 좋고 편안한 디자인의 팬티 제품을 선호하며, 심미성에 대한 요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여성을 위한 팬티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맞춤새와 착용시에 느끼는 편안함에 주안점을 두고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노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므로써, 우리나라 노년기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 대상의 거주 분포를 고르게 표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화, 최혜선 (1995). “노년기 여성 체형의 특성 및 유형화.” *복식* 26권.
- 김금화 (1999). “노년여성의 하반신 체형특성과 스킨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이은영 (1998). “의류상품 유형별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1).” *한국의류학회지* 12권.
- 김세희, 이은영 (2001). “내의류소비자의 구매 성향에 따른 시장 세분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11호.
- 김수아, 이경미, 최혜선 (2003).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복식* 53권 6호.
- 김인순 (2000). “노년 여성의 체형특징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네이버검색 미리보기 (2000년 8월 작성 [2005년 1월 17일 검색]). “산업분석보고서”;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search&query>
- 도월희 (1994). “노년층 여성의 체형특성과 Briefs 원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인 (2002). “노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류 및 하의류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복종별 니치 마켓 집중 분석,” *어패럴뉴스* (2000년 9월 기사 [2005.1.17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apparelnews.co.kr/news/2000/09>
- 사효선 (1988). “우리나라 20대 미혼여성의 속옷 디자인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최혜선 (1994).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여성 체형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권 4호.
- 이진경 (1995). “중년기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따른 하의 치수규격과 슬랙스 원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실 (1997). “의복상표충성도의 차원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속옷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권.
- 정혜원 (2004). “여성의 내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 정혜원, 김구자 (2002). “노년 여성의 내의 구매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인천광역시 중심으로.” *복식* 26권 5호.
- 조영미 (1989). “내의의 소재별 착용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 (2002) “노인과 의복.”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권 1호.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4년 11월 4일 검색]). “국내 통계 : 소비(내의류 소비시장 규모)”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 @ http://www.kofoti.or.kr/info/statDomestic_list.php?currPage.